

Tech & Stock

하나금융투자 4차산업 포트폴리오

글로벌 리서치팀(3771-7793, 7721)

▶ 하나금융투자 4차산업 포트폴리오 종목별 수익률 현황

| 편입 종목 | 주간수익률(%) | PER(배) | ROE(%) | 매출액 성장률(%) | EPS 성장률(%) | 실적발표일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애플 | 0.5 | 25.0 | 131.8 | 28.8 | 49.2 | 2021-07-30 |
| 아마존닷컴 | 1.0 | 49.1 | 25.5 | 27.0 | 78.3 | 2021-07-30 |
| 알리바바 | (4.6) | 19.5 | 15.5 | 29.5 | 31.5 | 2021-08-20 |
| 바이두 | 1.5 | 18.5 | 9.9 | 18.2 | 75.9 | 2021-05-18 |
| 페이스북 | 3.3 | 22.6 | 24.9 | 33.6 | 39.8 | 2021-07-30 |
| 알파벳 | (0.6) | 24.6 | 24.7 | 8.5 | 58.7 | 2021-07-30 |
| 마이크로소프트 | 0.4 | 32.4 | 43.2 | 16.2 | 32.7 | 2021-07-22 |
| 엔비디아 | (0.2) | 42.0 | 39.7 | 34.1 | 97.8 | 2021-05-27 |
| 텐센트홀딩스 | 1.2 | 31.6 | 19.0 | 22.5 | (3.1) | 2021-05-20 |
| 삼성전자 | (4.3) | 14.4 | 13.0 | 13.1 | 40.0 | 2021-07-30 |
| 넷플릭스 | 1.4 | 45.6 | 36.1 | 19.0 | 85.4 | 2021-07-16 |
| 소프트뱅크 | (17.1) | 13.4 | 10.3 | (55.5) | 흑전 | 2021-08-10 |
| 세일즈포스닷컴 | 1.8 | 63.2 | 8.4 | 21.2 | 33.4 | 2021-05-27 |
| 페이팔 | 1.1 | 52.1 | 23.4 | 20.5 | 33.8 | 2021-07-29 |
| 어도비 | 1.5 | 41.0 | 39.9 | 20.2 | 9.0 | 2021-06-17 |
| 서비스나우 | (1.4) | 83.6 | 33.9 | 27.1 | 19.9 | 2021-07-29 |
| 테슬라 | (6.2) | 131.7 | 17.7 | 57.6 | 552.7 | 2021-07-22 |
| 평균 | (1.2) | 41.8 | 30.4 | 20.1 | 77.2 | |

주1: 21.5.17 종가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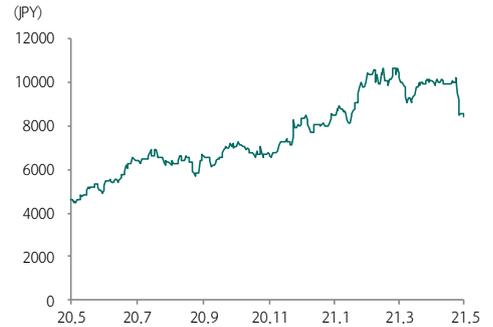
주2: PER, ROE, 매출액, EPS 성장률은 2020년 Bloomberg 조정 실적 전망치 기준(*일부 종목은 회계기준에 따라 차기 회계연도 전망치)

4차산업 주요 종목 주간 뉴스

1) 소프트뱅크 FY2020 실적 발표, 일본 기업 사상 최대 순이익 기록

| | | |
|----------|-------|--|
| 상장 국가 | 일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프트뱅크그룹은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 일본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순이익 기록 [FY2020년 실적] 매출 5,6조엔 +7.4% yoy (vs. 컨센 5.5조엔 소폭 상회), 순이익 4,9조엔 +618.7% yoy (vs. 컨센 3.5조엔 상회) |
| 섹터 | 테크 지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[4분기 실적] 매출 1,5조엔 +11.4% yoy (vs. 컨센 1,4조엔 소폭 상회), 순이익 1,9조엔 +234.4% yoy (vs. 컨센 0.2조엔 대폭 상회) 4분기 비전 펀드 부문 3.6조엔 +165% qoq 기록하며 1년 만에 회복세 |
| 시가총액(조엔) | 14.7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내 기업 최초로 뉴욕거래소에 상장한 쿠팡의 성공적인 IPO를 통해 회수한 투자수익률은 7.5배에 달하고 투자금 27억달러는 206억 달러(3월 11일 기준) 가치로 상승 또한, 중국 배차 앱 디디추싱(滴滴出行) 등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기업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며 코로나19 팬데믹의 가장 큰 수혜자라는 시장의 평가 비전펀드가 투자 후 상장한 기업 기준 전체 투자 수익률은 3.1배 기록, 비전펀드2가 투자 후 상장한 기업 기준 전체 투자 수익률은 3.3배 기록 |

최근 주가 추이



2) 페이스북 13세 이하 어린이 전용 인스타그램 출시 논란

| | |
|------------|--|
| 상장 국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페이스북은 5월 초 필요에 따라 부모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인스타그램 “Instagram Youth” 출시를 예고한 바 있음. 이에 미국 44개 주 검사들이 SNS가 청소년 자아 형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염려하며 반대하는 성명서를 CEO에 전달 |
| 미국 | |
| 섹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페이스북 측은 청소년들의 SNS 사용은 불가피한 흐름이며, 기존의 인스타그램/페이스북에서 여과없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보다 전용 SNS를 가지는 것이 낫다는 입장. 어린이 전용 버전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SNS 사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할 것으로 예상. 페이스북은 이에 더해 지난 월요일 어린이 전용 SNS에는 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|
| 인터넷 | |
| 시가총액(십억달러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다만, 주검사들은 2017년 페이스북 메신저 어린이 버전인 “Facebook Messenger for Kids” 앱에서 본래 의도와 달리 부모의 감시를 벗어나 모르는 사람으로 구성된 그룹챗에 참여할 수 있다든지 일부 오류가 있었던 점을 들며 어린이 전용 서비스를 출시하기에 준비가 미진하다는 점을 강조 |
| 895.8 |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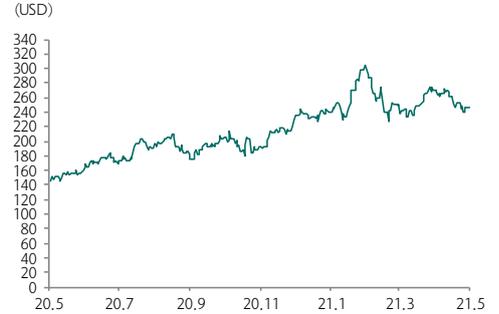
최근 주가 추이



3)페이팔 암호화폐 청구서 결제 서비스 준비 중

| | |
|------------|---|
| 상장 국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21년 5월 10일 댄 숄만 페이팔 CEO는 “3분기 암호화폐 지갑이 업그레이드되면 청구서 기능이 추가될 것”이라고 언급.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뿐 아니라 결제 수단으로도 진전을 보이기 위한 업그레이드 |
| 미국 | |
| 섹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이에 대해 댄 숄만은 “암호화폐의 자체 유용성에 집중하려고 한다”고 언급. 댄 숄만은 과거 암호화폐 결제액이 수개월 내 2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내고, 암호화폐가 페이팔의 “핵심 성장 엔진”이라고 말한 바 있음 청구서 결제 서비스는 3월 30일 미국 내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인 “Checkout with Crypto”, 4월 Venmo 애플리케이션 내 암호화폐를 매매할 수 있는 “Crypto on Venmo” 기능 추가 이후 암호화폐 시장 성장에 확신을 가지고 사업모델 확장 목표. |
| 전자결제 | |
| 시가총액(십억달러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21년 1분기 총결제금액은 1년전 대비 49.8% 증가하고, 특히 벤모 결제금액도 64% 증가했는데, 벤모 사용자의 30% 이상은 이미 암호화폐를 매매, 늘어나는 결제 트래픽과 암호화폐 매매 및 활용 수요가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 |
| 289.3 | |

최근 주가 추이



Compliance Notice

-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(김재임)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,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.
-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당사는 2021년 5월 18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(김재임)는 2021년 5월 18일 현재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.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